전국사찰에 시민묵조선원 개설 · 계율 재정비 추진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11일자로 종교법인 인, 허가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 공식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종단 26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실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지명덕찬 대선사.

수미산문 중창한 대한불교 조동종

석존께서 2590년 전에 개발한 묵조선법의 수행끝에 정각을 이루셨고 1070년 전에 동조선으로 창수한 이엄진철 수미산문의 법통이 단절되었음을 통탄하던 종도들이 1989년 5월27일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청련사(靑蓮寺)에 모여 이엄진철(利嚴眞徹)의 법통과 묵조선풍을 계승하는 수미산문 중창대작불사(須彌山門 重創大作佛事)로서 대한불교 조동종(大韓佛敎 曹洞宗)을 중창한 다음 1990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등록 함으로써 국가공인을 받는 공식 종단으로 등장하였다.

중국 소림사 조동정종 법통 사법보완

불법전승은 친승기별이 불변철칙이다.

전 해인총림의 이성철 방장이 저술한 「한국불교 법맥」에서 법사와 법제자가 상면하여 친승기별(親承記莂)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사와 법제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변개하는 것은 불법무효이며 불법전승에 있어 친승기별은 여하한 이유로서도 변개할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림사 조동정종의 순수 정통성

조동 제9조 녹문자각의 6대 법손으로서 조동 제15조 설정복유(雪庭福裕) 문하에 2대 제자가 있는바 영은문태(靈隱文泰)의 법손은 동운종이 되었고, 혜구(慧矩)의 법손은 소림사 조동정종 (少林寺 曹洞正宗)이 된바 유독히 바를 정자(正)를 하나 더 쓴 이유는 동운종파와 같이 친승기별 철칙과 율장이 없이 5역중범죄인을 수법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사실 그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법전승 한다는 뜻에서 정(正)자를 더 첨가한 것이다.

○…소림사 청심소회 방장에게 사법

1994년 7월 16일 박운파 종정(朴雲坡 宗正) 윤지명(尹智明) 총무원장 이하 본 종단의 60여명이 소림사 장경각 법당에서 제30대 주지 겸 방장인 청심소회(淸心素喜) 법사를 모시고 입실건당한 바 서천 제82조, 동토 제55조, 조동 제45조의 정통법맥을 계승하여 단절되었던 수미산문의 법맥을 보완하였고 이어 소림사 사천왕문(四天王門) 앞에 수미산문 중창 및 조동정종 법통사법 기념 비석을 건립하였고 한국내에도 2001년 5월 27일 현 종정 주석 사찰인 청련사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추진사업 계획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사업

신도의 사부대중이 연속적 연수교육과 행자 사미(行者 沙彌)의 교육과 합동득도수계식 입실건당식과 구족계 보살계 등을 부단히 봉행하여 종도의 자질향상(資質向上)에 적극 진력한다.

○…전국사찰에 시민 묵조선원 개설

교통과 시설이 가능한 전국사찰의 법당이나 회관에 시민 묵조선원을 개설하여 현대문명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불자들의 심신 수양처를 제공한다.

○…의식의 간소화

현재의 각종의식은 한문화 되어있고 너무 길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한글화와 요약간소화 한다.

○…계율의 재정비

①석존께서는 「교단화합과 번영을 위해서는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으니라」 하셨고 ②불멸 후 경전 제1결집과 제2결집시에 문제화 된 십사정(비)법(十事淨(非)法)에 대한 계율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③중국의 백장청규(百丈淸規)는 걸식탁발법(乞食托鉢法)을 떠나 선농병행주의(禪農竝行主義)를 택하는 개혁을 하였고 ④신라의 원광은 세속5계에서 살생유택(殺生有擇)을 ⑤고려의 보조는 계율의 개차법(開遮法)을 ⑥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등이 있다. 이제 본 조동종은 과거와 현행제도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만은 없어 불교현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알맞은 승려들이 힘껏 활동하여 피모대각 이류중행 (被毛戴角 異類中行)으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계율을 재정비 한다.

○…조동종 특색의 성전 간행보급

조동종 묵조선 사상의 위치에 서서 선밀교의 포괄적 대성전을 간행하여 전 불자에게 보급하여 불심을 고취시킨다.

○…전 종도의 근로봉사 운동 전개

일손 모자라는 일터에 본종 전 종도는 집단적으로 매년 1회이상 무보시 근로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받는 재보시로부터 베풀어 주는 법보시와 육신적 근로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승속일여 (僧俗一如)의 일치 신뢰감을 확산시킨다.

◇총무원장 심월덕담.

대한불교 조동종 종지종풍 소의경전

- 교주 : 석가모니불
- 종조 : 동산양개(洞山良价)
- 수미산개조 : 이엄진철 (利嚴眞徹)
- 중창조 : 지명덕찬 (智明德璨)
- 종지(宗旨) 종풍(宗風) 석가 교주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선정후혜(先定後慧)의 조동종 묵조선 기본 수행법에 따라 심신탈락(心身脫落) 이심전심(以心傳心) 즉심시불(卽心是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동산양개(洞山良价)의 투철한 작주성과 이엄진철(利嚴眞徹)의 법성원융무애(法性圓融無碍)한 수미산창수(須彌山創樹)의 개척정신과 지명덕찬(智明德璨)의 중창이념(重創理念)을 묵조선풍(默照禪風)과 조동종 종풍(曹洞宗風)으로 한다
- 소의경전 (所依經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의 진공묘유(眞空妙有)한 일승불이(一乘不二)의 사상과 석두(石頭)의 참동계(參同契), 동산(洞山)의 정편5위(正偏五位) 만송(萬松)의 종용록(從容錄)과 기타 전등법어(傳燈法語)를 소의경전으로 한다

대한불교 조동종 조직

종정 : 尹智明(德璨)	재무부장 : 李法緣
승정원장 : 韓春澤	규정부장 : 趙行修
승정부원장 : 崔諦空	사서실장 : 郭法輪
문도회장 : 裴梵海	감찰부장 : 李正默
총무원장 : 朴心月	포교부장 : 許雲成
부원장 : 金日光	
감찰원장 : 金正林	**전국교구 종무원**
종회의장 : 林眞一	서울원장 : 金德龍
종회부의장 : 禹海倫	경기원장 : 洪晩悟
포교원장 : 金法空	강원1원장 : 李滿慧
교육원장 : 黃大雄	강원2원장 : 成慧泉
문화원장 : 宋慧厚	충북원장 : 延大景
선원장 : 金大休	경북원장 : 朴雲鶴
율원장 : 朴一松	대구원장 : 林德實
호법원장 : 金大觀	경남중부원장 : 梁海日
총무부장 : 宋德性	경남서부원장 : 黃法光
사회부장 : 郭行旭	울산원장 : 朴海月
교무부장 : 劉光慧	부산원장 : 鄭德正

佛敎曹洞正宗法脈系譜

◇중국불교 조동정종 숭산 소림사 정통법맥계보가 대한불교 조동종으로 이어진 법맥계보.

◇2001년 5월27일 청련사에 세운 '수미산문 중창 및 조동정종 법통사법 기념비'. 이 비석은 1994년 중국 소림사 사천왕문 앞에 도세웠다.

묵조선(默照禪)의 약사

불교탄생의 모체(母體)

석가세존께서 2590년전인 기원전 588년 음력 12월8일 견성성불 하신바 그 수행방법은 선정후혜(先定後慧)의 묵조선법에 의해 성취 하셨으니 묵조선은 부처와 불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모체이다.

부처와 불교 탄생시킨 근거

◇경전에 나타난 묵조선

「정혜등학 명견시불(定慧等學 明見是佛)」에서 정(定)은 묵(默)의 뜻이요 혜(慧)는 조(照)의 뜻인바 정묵(定默)은 마음의 산란을 막아주는 것이요. 혜조(慧照)는 혼침을 제거하여 광명의 지혜를 밝히는 뜻이다. 따라서 선정후혜의 묵조선 수행법에 의해 정과 혜를 수련하여 닦으면 해탈의 광명이 밝아지나니 이것이 곧 부처이니라 라는 해설이 된다.

〈열반경(涅槃經)〉

조동종 제2조 조산본적(839~901)은 「정의공계<본체계>는 본래무물이니 시묵경계요 편위색계<현상계>는 유만상형이니 시조경계니라(定位空界<本體界>는 本來無物이니 是默境界요 偏位色界<現象界>는 有萬像形이니 是照境界니라), 묵조자는 불불조조 적적상승지대법이니 세존 6년 단좌지비법과 달마면벽 9년은 용주벽관지경계이니라(默照者는 佛佛祖祖 嫡嫡相承之大法이니 世尊 六年 端坐之秘法과 達摩面壁 九年은 凝住壁觀 之境界也니라)」이를 해설하면 우주본체의 참모습은 본래 한물건도 없는바 이것이 묵(默)의 경지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세계는 삼라만상의 형상을 갖춘 모습은 이것이 조(照)의 경지 이니라,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제조사들이 적통정통으로 상승해온 대법칙이니 세존의 6년간 결가부좌로 입정한 비법과 달마의 9년간 면벽입정은 무아삼매(無我三昧)의 묵조선 수선의 경지이니라 라는 뜻이다.

〈조산본적(曹山本寂) 어록(語錄)〉

달마가 중국에 묵조선 전해

서기 520년(1482년 전)에 인도의 서천 제28조 달마가 중국 숭산 소림사 달마동(少林寺 達摩洞)에서 최초로 전파한 선도 묵조선이었는바 이것이 서천 제33조요 중국동토 제6조 혜능(慧能)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전승되어 갔다.

임제종(臨濟宗)의 간화선 (看話禪) 대두

석가세존이 기원전 544년(2546년 전)에 대열반하신 이래 정법(正法)시대 1천년을 지나 상법(像法)시대 1천년에 들자 근기가 희박하여 짐에 따라 중국 당나라 시대에 와서는 도교(道敎)의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 철학을 도입하여 중국식 간화선을 개발하였으니 특성은 ①화두(話頭)를 들고 ②할(喝)로써 소리지르며 ③방(棒)으로써 몽둥이질하는 등 방편을 써서 묵조선법과는 정반대로 선혜후정(先慧後定)으로써 학인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경책하였는데 이것이 임제의현(臨濟義玄) 당시에 주역할을 한 까닭에 임제간화선 또는 임제종 간화선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조동종의 묵조선 대두

이제까지 조용하던 중국 선정의 경지에 임제종 간화선이 새로 등장하자 당나라 동시대의 동산양개(洞山良价)는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인 혜능(慧能)이 주석하는 조계산(曹溪山)과 동산양개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종명(宗名)을 조동종(曹洞宗)이라 공칭(公稱)하고 세존께서 성불하신 수행법을 묵조선(默照禪)이라고 호칭한 바 동토 제8조 석두희천의 참동계(參同契), 조동 제14조 만송행수의 종용록(從容錄)에 의지하여 수선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엄의 중국 운거도응 법통 사법

신라승 이엄진철(利嚴眞徹)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眞如禪寺)에 주석하는 조동 제2조 운거도응(雲居道膺) 문하에서 6년간 묵조선을 수련끝에 심인(心印)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엄의 수미산문 창수

서기 932년(1070년 전)에 세속제자가 된 고려의 왕건태조(王建太祖)가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내정리의 수미산 성지에 광조사(廣照寺)의 대사찰을 국력으로 건립하고 제1대 주지로 모신 바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묵조선 선풍(默照禪 禪風)을 크게 펼치니 500여 제자 학인들이 전국에서 운집하였으니 이것이 수미산문(須彌山門)의 창수이다. 그리고 신라말 고려초에 20여명의 승려가 중국에 가서 묵조선 법통을 계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형미(逈微), 경유(慶猷), 려엄(麗嚴), 이엄(利嚴)은 해동사무외사(海東四無畏士)라는 존경의 호칭을 중국에서 받았다. 그러나 잦은 인근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고려국운과 함께 수미산문도 수대를 못가서 법맥이 단절되는 비운을 당했다

그 이후 묵조선 사상의 흐름

그러나 묵조선의 수미산문 즉 이엄진철의 법맥은 비록 단절 되었어도 묵조선 사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니 ①고려 중엽 일연(一然)은 중편조동5위(重偏曹洞五位) 2권을 저술하고 2회에 걸쳐 9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열었으며 ②조선시대에는 설잠(雪岑)이 조동종의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를 저술했고 ③임진왜란 당시 서산 휴정(西山 休靜)과 사명 유정(四溟 惟政)은 불살생에 대한 인과의 엄청난 부담을 감수 하면서도 조동종 묵조선의 핵심사상인 「피모대각이류중행(被毛戴角異類中行)에 대한 이타행(利他行)정신으로 왜적을 무찌르는 승군(僧軍)을 일으켜 호국사상을 실현하였으며 ④한암에 만해(萬海)는 조동종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저술하고 서산과 사명처럼 조동종 사상에 입각하여 불굴의 독립투쟁을 한 것이다.

◇중국불교 숭산 소림사 장경각에서 입실건당 기념 소림사 탑림사진(1994년).

묵조선은 부처·불교 탄생시킨 위대한 모체

이엄진철 수미산 법통계승…1989년 조동종 중창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70-6
전화 02)2062-0725
팩스 02)2062-0726